

제2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 激 勵 辭

2004. 9. 21

統一部 次官 李 鳳 朝

존경하는 이재운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님,  
고순호 이북 5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북 도지사님,  
장영철 이북중앙도민회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도민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산가족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이산의 아픔을 되새기고, 흩어진 가족과의 상봉의지를 굳게 다짐  
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산가족의 날」 행사가 올해로 스물세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이재운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반세기 넘는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이산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정부 관계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열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었고  
2,000여명의 이산가족이 꿈에도 잊지 못할 혈육 10,000여명과 감격  
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으로 흩어진 26,900여명의 이산가족이 혈육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였고, 서신교환사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의 이산가족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러한 성과만으로는 그 한을 풀어드리는데 무척이나 미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고, 현재 그 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은 여러분들의 오랜 바램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면회소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몸이 불편하신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화상상봉을 비롯, 상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북측의 호응이 없어 안타깝습니다만,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국간 회담을 통해 북측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의 꾸준한 진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방면에 걸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는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장을 건설하고 실제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 금년 내로 제품도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측도 개성공단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많은 부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동·서에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이면 도로 개통과 철도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학술·종교·체육 등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도 분야별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족의 동질감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간에 협의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로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회담의 재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평화와 협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산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산의 한을 풀 날까지 건강을 잃지 마시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에 힘과 용기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천만이산가족제회추진위원회」와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